■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가정 제목 : 행복한 가정 성경:베드로전서 3장 8-13절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벧전3:8-13)

베드로전서 3장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앞 부분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부터는 딱히 가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언질은 없지만, 앞부분의 문맥으로 보아 가정에 적용하면 지혜로운 적용이 될 것이다. (오늘까지가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주간이다.)

8절.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라는 뜻. 배려하라. 동정하라는 말도 같은 맥락.

-어떨 때는 불쌍히 여겨야 할 때도 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라는 뜻. 오해를 받고 있는지, 곤란을 당하고 있는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건강에 문제를 격고 있는지,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고 이해해 주어라는 뜻.

-겸손하라는 뜻은 특히 결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가문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다. 상대방의 가문을 업신여기는 것은 치명적인 범죄행위. 아무리 기가막힌 가문에 태어났더라도 그는 그 가문을 위해서 태어났으므로 그가 가문을 위해서 선을 행할때는 격려를 받아야 한다.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은 갈등이 있는 가족들간에 사용하는 지혜가 된다. (물론 이 지혜는 형제인가 아닌가를 잘 가늠해야 한다. 나와 얼마나 친분이 두터운지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 일단 친분이 두텁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 것을 보거들랑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라면 우선 신고부터 해야 한다.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급박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돕는 것부터 해야 한다.)

(친분이 생겼다면 사람이 아닌 악을 대적해야 한다.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을 대항하는 것과 악한 사람을 대항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악을 대항하며,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않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 (비난, 악성댓글, 무시, 인격에 대한 모독 등이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선이 적극적인 선이다. 악에게 당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악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천하고 대항해야 한다.

-보복하지 말고, 방지하고 방어하고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라.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뜻.

-이 가정에 어떤 저주가 있던지, 그것은 반복되는 죄와 관계가 있

고 또는 되물려지는 악행과 관계가 있다. 자기가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저주를 끊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뜻.

-이 저주는 적극적인 선행으로 끊어진다. 적극적인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이며, 새생명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랑의 수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것' 저주로 인해서 끊어진 복을 이어받게 된다. 복은 이어받는 것이다.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생명을 사랑하고'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을 사랑하고. 내가 하필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너무 복된 가정에 태어났다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부터 잘하면 된다. 최소한 설령 내가 가문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해도 내 자녀에게 복을 물려줄 수는 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말조심부터 잘하자. 생각 조심부터 잘하자.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자. 입에서 후회, 원망, 근심, 걱정, 비아냥, 욕, 비난, 비판, 저주 등의 모든 악한 말을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자.

-거짓말을 버리자. 모든 거짓말은 감옥의 창살이 되어 나를 옭아맨다. 오직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에서부터 말과 생각과 소망과 믿음과 사명이 피어난다.

-거짓에서부터도 말과 생각과 소망과 믿음과 사명이 피어난다.

-진리에서부터 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거짓으로부터는 가시와 엉겅퀴와 돌열매를 얻을 것이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계속해서 속으면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 인생. 나는 누리는 자가 아닌, 탐구하는

자임을 명심한다면 결코 실망하는 일은 없으리라. 아멘. 왜냐면 우리는 이 생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찬양예배>

주제:갈등 제목:갈등을 없애는 유일한 길 말씀:잠언 17장1-15절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4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6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7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8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9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0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11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12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13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4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15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잠17:1-15)

-우리나라는 ㄱ,ㄴ의 나라. 나중에는 ㄷ, ㄱ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이 갈등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시작됨. (신라 백제의 망령은 그냥 망령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는 좌파 우파의 갈등이 있다. 그러나 양쪽 끝을 모두 조종하는 자는 마귀다. 이 둘이 싸우도록 부추기면서 이익을 챙기는 자가 누구인지 연구해야 한다. 극파는 극 소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자 행동강령.

-갈등은 해소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간다.

-갈등은 운명이 아니라 숙명.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내가 풀지 아니하면 숙제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

-갈등은 부끄러운 것. 해소하지 아니하면 계속 부끄러운 것.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뜻.

2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설령 어느 가정에 형제가 아닌 종이라(그는 결코 형제처럼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할지라도 그가 지혜롭게 행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유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소외 받는다고,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주도권 다툼으로 허송하지 말 것이다. 오직 슬기로울 필요가 있다. 화목에는 슬기로움이 중요함.

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찌꺼기가 있다면 귀히 쓰임을 받지 못한다.
-우리 안에 거짓, 탐욕, 비방, 비난, 시기, 질투 등 모든 악할 것들을 내어 버리자.

4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마다 속에 거짓의 울림통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믿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마귀의 종이다.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 (솔직히는 분간이 어렵다.)

7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은 분수에 지나친 말. 바른 말이라도 자신이 하면 안되는 말이 있다.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자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의 영적인 의미는 마귀의 말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악한 의도가 들어있다면 마귀의 말, 즉 거짓말이 된다.
-존귀한 자의 말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스스로가 미련한 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존귀한 자는, 갈등에 대해서 모르쇠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 악하며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자.